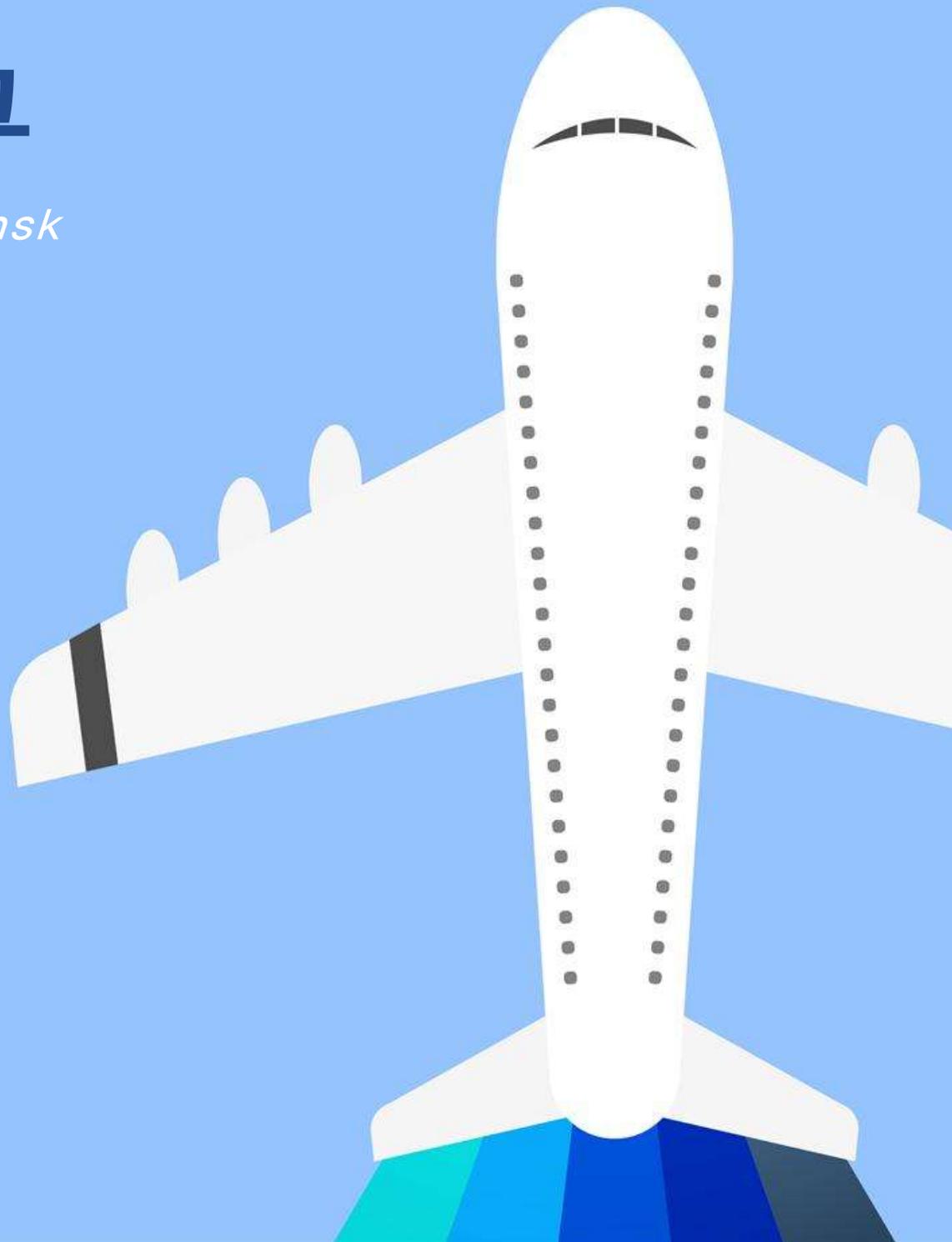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벨라루스

민스크

KOTRA Minsk



목 차

I. 상담 유의사항	1
II. 벨라루스 개요	6
III. 벨라루스 경제·무역동향	12
IV. 한국-벨라루스 관계	16
V.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19
VI. 민스크 시내 주요 식당 정보	22
VII. 주요 명소 및 기념품	23
VIII. 무역관 오시는 길 및 주요 연락처	30

I. 상담 유의사항

□ 제조사 선호

- 현지 수입상/도매상은 제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을 감안하여, 제조사는 제조업체임을 강조할 필요 있음

□ 처음부터 많은 물량의 오더 기대는 금물

- 벨라루스의 경우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영세하며, 러시아 수입업체 및 딜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업체도 있으며, 최초 거래시 MOQ에 미달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재의 경우 현지 중산층 이하 서민의 소비수준 고려 시, 소량 주문부터 시작하는 경향
- 그러나 시장경쟁이 덜하고 직수입을 통한 수익 극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적은 물량이라도 초기에 성실하게 대응하면 일정 시점이 지나 고정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어서 자본력이 약하거나, 소규모 바이어일 경우에는 통관능력이 없어 제품을 수입하고 싶어도 못하기도 함

□ 벨라루스와의 직거래 활성화 필요

-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엄연히 다른 시장이므로, 직거래 활성화 필요
 - 벨라루스에 수요는 있지만 오더가 많지 않은 제품의 경우, 러시아 내에 있는 딜러가 벨라루스까지 판매를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러시아 바이어는 벨라루스까지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커버가 되더라도 벨라루스 디스트리뷰터 입장에서는 러시아 바이어가 중간 마진을 붙여 제품을 팔게 되므로 러시아보다 가격이 높아져 높은 단가로 인해 다량 주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참고로 벨라루스는 러시아보다 국민 평균 소득수준이 약 절반수준으로 낮음)

□ 대금 결제조건 관련 벨라루스 바이어 특성

- 벨라루스는 만성 외환부족 국가여서 외환통제가 까다로워, 바이어가 수입대금으로 외화 확보시, 정부에 신청서류 작성 등 불편한 점이 많음
 - 송금 후 90일 이내 제품이 벨라루스에 들어와야 함. 이에 많은 바이어들이 D/A, D/P (외상)거래를 종종 요구해 당혹스런 경우가 다반사
- 우리기업의 경우, 50% 미만에서 T/T 선지급을 하고, B/L을 바이어에게 보내면서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 제품 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조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신용장 거래를 하는 바이어도 있으나, 주거래 국내은행에 확인하는 절차 필요 (벨라루스 신용도가 금융계에서 낮은 편이어서 상당수 국내은행들이 벨라루스은행이 발행하는 L/C 수취거절)
- 수입기업이 수입 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입제품이 벨라루스에 도착해야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데, 만약 90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매일 벌금을 물게 되어 있음
 - 실제로 한국에서 벨라루스로 제품 운송기간은 대부분 90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LCL의 경우 간혹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

□ 물품 인도조건 관련 벨라루스 바이어 특성

- 경험에 의하면, 벨라루스 바이어들은 FOB, CIF 보다 CIP 조건을 선호
 - 벨라루스는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CIF보다 CIP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음
 - 현지 업체들 중에는 제품운송 등에 아직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들이 있으므로 가격 준비시 FOB, CIF, CIP 모두 준비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수입경험이 많은 수입상 또는 현지 제조사 등 규모가 있는 바이어들은 FOB 또는 EXW를 물품 인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비교적 많음
 - 수입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사가 거래하고 있는 물류회사 등을 직접 선정하여 이용하는 성향이 강하며, 세관과 커넥션이 있어 쉽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FOB / EXW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기도 함

- 비교적 규모가 작은 수입상이거나 국영기업의 경우, CIP 조건을 내걸고 본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이 있음
 - 바이어 입장에서 부담은 적지만, 벨라루스 수출 경험이 적은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조건이 될 수 있음
 - 바이어가 CIP 조건을 내세울 때는 통관에 있어 바이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상호 조율할 필요도 있음

□ 현지 인증 취득은 필수

- 벨라루스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벨라루스 품질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품질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어 바이어와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3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 이후 2015년부터 EAC(Eurasian Conformity) 인증제도 시행(통합·개편) 중으로 동 인증 획득시 EAEU 5개국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일부 제품군의 경우 각국의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일부 품목의 안전 검사 등 벨라루스 법규에 의해 수입상품에 대한 증빙서 첨부이 필수적인데 해당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 등에 삽입하는 것이 좋음. 모델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EAC인증은 기존의 GOST-R, GOST-B 등 각 개별국가가 운영하고 있던 인증과 마찬가지로 적합성 인증서(CoC)와 적합성 선언서(DoC)로 구분됨
 - CoC는 일부 기계류, 크레인, 엘리베이터, 수공구류, 테스트 장비 등 제품에 해당되며 공장심사가 필요함
 - DoC는 화장품, 소비재 등 위험성이 적은 대부분 제품에 해당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서류심사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함. DoC는 바이어 명의로 등록하게 되어있으며, 등록비용은 바이어와 협의하면 되는데, 주로 바이어가 부담함
- 한국 내 EAEU 및 각국 인증 관련 검사·시험 전문기관 확인 요망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www.ktr.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1381(인증표준 콜센터, www.1381call.kr), Sercons코리아(www.sercons.co.kr) 등
 - 벨라루스 인증등록을 관할하는 현지기관은 BelGISS(<https://belgiss.by>)임
 - 의료분야는 Center for Examinations and Tests in Health Service (<https://rceth.by/en>)

□ **한국→벨라루스 수출 루트**

- **해상운송:** 벨라루스는 내륙 국가이므로, 인근국인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港 또는 라트비아 리가港을 통해 복합운송으로 반입됨 (제품에 따라 비용은 상이)
 - 코로나 사태이후 아시아존 물량 집중과 이에 따른 컨테이너의 부족으로 인해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크게 상승함. 2021년 9월 기준 한국-벨라루스間 컨테이너 해상운임은 전년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4~5배까지 상승함
 - 운임을 포함한 조건으로 바이어와 계약시에는 사전에 국내 물류회사에 문의 후 최종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권장됨
- **항공운송:** 한국⇔벨라루스 간 직항이 없는 관계로, 항공편을 통해 벨라루스로 제품을 보낼 경우, 주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운반됨
 - 20kg 미만의 제품일 경우, EMS 등을 활용한 항공 운송을 추천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부터 EMS는 잠정서비스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EMS프리미엄(UPS) 또는 DHL, Fedex 같은 특사우편만 이용가능

□ **벨라루스, 벨로루시라고 부르면 안됩니다!!**

- 벨라루스(Belarus) 사람들은 자국을 벨로루시(Belorussia, 백러시아)라고 외부에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함
 - 소련시절 연방의 일부분으로서 벨로루시라 불렸으며, 지금도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속국처럼 취급하여 벨로루시라고 부르는데, 벨라루스는 1992년 독립하면서 '벨라'(하얀, 순수한) '루스'(동슬라브계 루스민족)로 별개의 민족국가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중임
- 바이어를 만나면 '벨로루시'라 하지 마시고 '벨라루스'라 하시기를 권함
 -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나, 벨로루시 라고하면 벨라루스인 입장에서선 마치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또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한국인을 조선진 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임

< 현지 입국 및 통관 시 유의 사항 >

※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를 통해 벨라루스 입국 시 무비자 30일 체류 가능

- * 2017.2.12부터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시행
- * 30일은 벨라루스 입국일, 출국일을 포함하여 캘린더데일로 30일 의미
- * 연간 합산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

1. 무비자 30일 체류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오니 아래 조건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경로에 “벨라루스→러시아” 또는 “러시아→벨라루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벨라루스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육로를 통해 벨라루스 출입국을 하는 경우 벨라루스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의: 벨라루스-러시아 간 육로이동은 무조건 불가능
 -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민스크국제공항을 통해 벨라루스를 입국하는 경우에만 무비자 30일 체류 가능

※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불가(30일 초과 체류 불가능)

구분	항공(민스크국제공항)	육로(차량, 철도)
벨라루스-러시아 왕래	벨라루스 비자 필요	금지
제3국-벨-러 또는 러-벨-제3국 이동	벨라루스 비자 필요	금지
벨라루스-제3국(러시아 제외) 이동	30일 무비자 적용 ※ 체류기간 30일 초과시 비자 필요	벨라루스 비자 필요

2. <주의> 거주등록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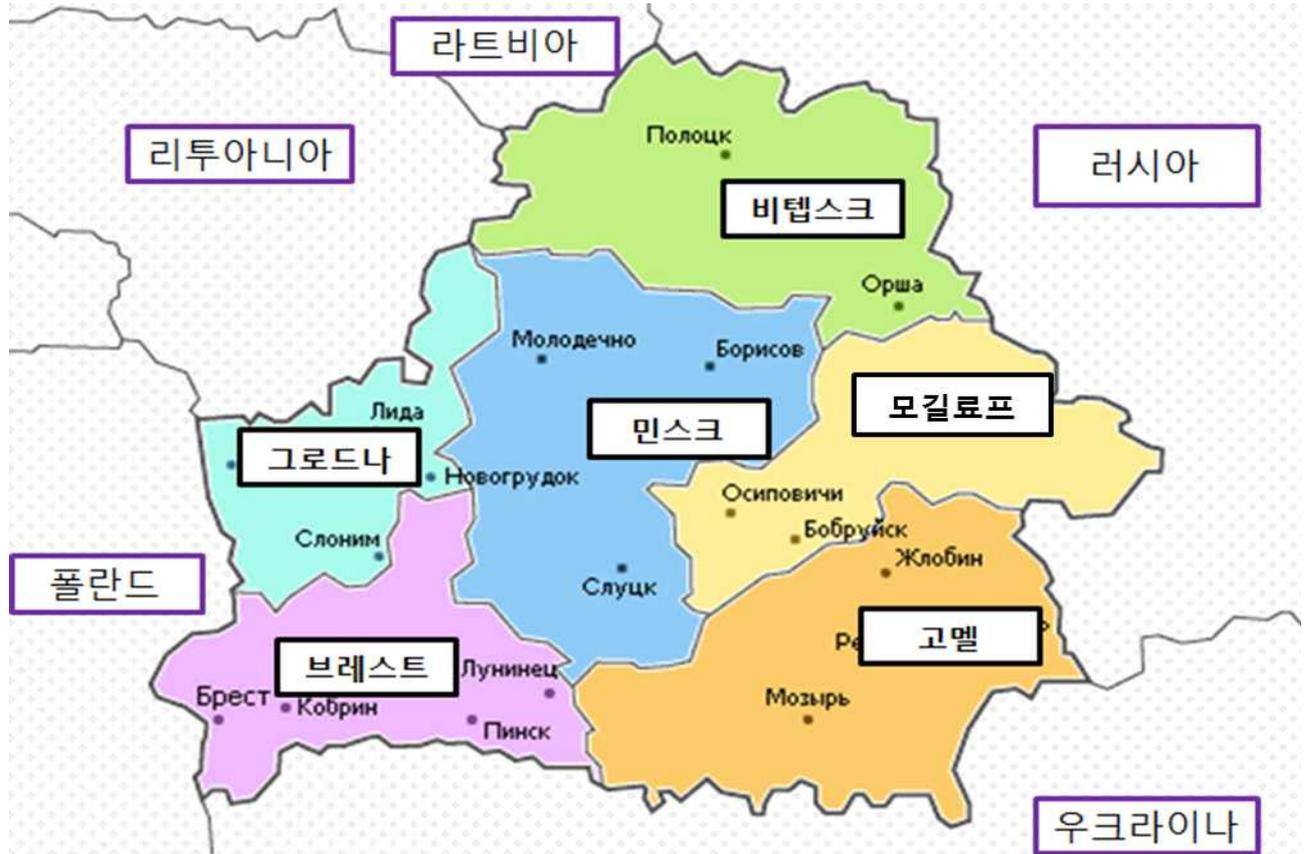
- 비자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벨라루스에서 5일(캘린더데이)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인 “거주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입국일, 출국일 포함하여 5일
- ※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체류 6일째가 되는 경우 현지법 위반으로 적발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호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체크인시 조치되며, 아파트 임대 또는 지인의 거주지에 체류할 경우 이민국 방문 거주등록 필요

3. 문의사항

- 주벨라루스 대한민국대사관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by-ko/index.do>
 - 이메일: belemb@mofa.go.kr
 - 전화: +375-17-215-0170~2 (대표) / +375-29-369-1320 (근무시간 외, 당직)
- 주한 벨라루스대사관
 - 홈페이지: <http://korea.mfa.gov.by/ko/>

II. 벨라루스 개요

1. 국가현황 : 지도/국기/국장



※ 벨라루스는 6개주로 구성되어 있고,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국기의 왼편 문양은 전통문양으로 (과거 독일군 기사와의 전쟁중에 피가 묻은 흰봉대가 승리의 표상으로 사용된 것에서 유래)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그것의 정신적인 계승, 국민의 단합을 나타내며, 빨강은 지나간 시대의 영광을, 초록은 미래·희망·봄·부흥·산림·들판을 상징

2. 국가현황 : 일반 사항

국명	벨라루스 공화국 (Republic of Belarus)
위치	유럽 동부와 CIS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라트비아 173km, 리투아니아 679km, 폴란드 398km, 러시아 1,283km, 우크라이나 1,084km 면해 있는 내륙국 (국경길이 3,617km) (북위 53°, 동경 28°)
면적	207,600km ² (한반도보다 약간 작음), 국경 길이 3,617km
기후	온대 대륙성 기후로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우기로 일조량이 적으며, 기압이 낮음 (1월 평균기온 -5°, 7월 평균기온 17°)
지형	최고해발이 345미터 수준으로 전체 국토가 완만한 평지를 이루며, 숲(영토의 40.1%), 천연늪지와 호수가 많음
수도	민스크(Minsk) (201.0만명, '21년 1월 기준)
행정구역	6개주(Oblast)와 특별행정구역(Minsk市)로 구성, 5개국과 접경
인구	총인구 935.0만명 ('21.1월 기준, 남성: 432.1만, 여성: 502.9만) - 인구증감률 (▽0.6%, '20년 대비 '21년 증감률) - 평균연령: 40.9세 (남성: 38.1세, 여성: 43.3세, '21년 1월 기준) - 출산율(1,000명당 9.3명), 사망률(1,000명당 12.8명) ('19년 기준) - 인구밀도 (45명/km ²), 인구분포 (도시: 77.9%, 농촌: 22.1%) ('21년 기준) - 평균수명: 74.5세 (남성: 69.3세, 여성: 79.4세, '19년 기준)
주요지역 인구현황	민스크市(Minsk, 201.0만명), 민스크주(147.3만명), 고멜주(Gomel, 137.5만명), 모길료프주(Mogilev, 101.4만명), 비텡스크주(Vitebsk, 112.0만명), 그로드노주(Grodno, 101.8만명), 브레스트주(Brest, 133.8만명) ('21년 1월 기준)
민족	벨라루스인(84.9%), 러시아인(7.5%), 폴란드인(3.1%), 우크라이나인(1.7%), 기타 소수민족(2.8%)
언어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러시아어가 일상 언어로 널리 쓰임 (문맹률 0.1%)
종교	러시아정교(83.4%), 가톨릭(8.2%), 개신교(3.1%), 기타(1.7%)
건국일	1991.8.25 (소련연방에서 독립) (국경일: 1944.7.3 (독립기념일, 나치로부터))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공화제), 의회 민주주의, 양원제(상원 64석, 하원 110석)
국가원수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1994년 7월부터 집권중)
시차	민스크(+3)-서울(+9)간 6시간 차이 (벨라루스 9-18시 = 대한민국 15-24시)

3. 국가 현황 :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9,453	9,469	9,470	9,448	9,429	9,410	9,350
명목GDP	십억 달러	78.6	56.8	48.1	54.7	59.9	64.6	60.1
1인당 명목GDP	달러	8,316	5,941	5,022	5,757	6,322	6,798	6,399
실질GDP성장률	%	1.6	-3.9	-2.6	2.5	3.0	1.2	-0.9
실업률	%	5.4	5.8	5.8	5.7	4.8	4.2	4.1
소비자물가상승률	%	18.1	13.5	11.8	6.0	4.9	5.6	5.5
재정수지(GDP대비)	%	1.0	1.8	1.3	2.8	3.8	2.3	-1.8
총 수출	백만 달러	43,556	26,660	23,538	29,240	33,907	31,088	27,263
(對韓 수출)	백만 달러	44.9	46.9	37.2	44.6	44.8	55.9	40.9
총 수입	백만 달러	43,946	30,292	27,610	34,235	38,441	37,620	31,116
(對韓 수입)	백만 달러	41.0	47.0	28.5	28.6	32.6	47.7	54.6
무역수지	백만 달러	-4,421	-3,632	-4,072	-4,995	-4,633	-6,405	-3,353
경상수지	백만 달러	-5,228	-1,831	-1,612	-952.4	22.9	-1,245.8	-240.8
환율(연평균)	BYN/US\$	1.0215	1.5864	1.9885	1.9318	2.0366	2.0914	2.4349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9.85	51.41	38.89	55.47	60.64	57.61	48.62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50.84	113.44	85.59	97.28	108.42	100.07	86.80

주: 2020년은 괄호안 기간현황 또는 전망치(*), GDP성장률의 경우 국내외 전망치가 상이
 자료: 벨라루스 정부, 벨 통계청, 벨 중앙은행, IHS Market, EIU, World Bank, IMF, EBRD, KITA 등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대선 정국혼란으로 -0.9% 성장, 2021년 소폭 회복 기대

- 벨라루스 경제는 러시아 경제에 의존적으로, 2015/16년 경기침체 이후 러 경제 회복과 함께 2017년 2.5%, 2018년 3.0%, 2019년 1.2%의 경기 회복세를 보임
 - 2020년은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벨-러 에너지 갈등지속, 2020년 8월 대선이후 정국혼란으로 경기침체, 현지화 평가절하 등으로 -0.9% 마이너스 성장 기록
 - 2021년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다면 소비심리와 경제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임
 - * (2021 GDP전망) WB -2.2%, IMF -0.4%, EDB 0.1% 벨 경제부 1.8%, (2021.1-8 통계청 발표) 3%
- 전문가들의 보수적 평가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유가시장 불안, 러시아와 석유공급 갈등, 벨라루스 루블 불안정 등의 대내외 불안요인이 있음
 - 세계 유가시장 정체 및 벨라루스의 주요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의 유가의존성은 벨라루스 산업생산의 항시적 불안요소임
 - * 유가가 올라야 러시아로부터 특혜를 받아 싸게 구입하는 원유/가스를 가공해 수출하는 벨라루스의 석유화학 제품이 대외 가격경쟁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음 (2021년 9월 기준 배럴당 75달러 선임)
 - 특히 2019년 러시아 석유부문 세제개편으로 양국이 갈등 중이며, 러시아의 보상이 없을 경우 2025년까지 벨라루스는 88~106억 달러의 손실이 전망됨
 - * 그간 벨라루스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무관세 수입하였으나, 2018년 7월 러시아 재무부가 벨라루스에게 유리한 특혜조건으로 석유를 공급함으로써 러시아가 피해를 본다고 판단, 석유부문 세제정책 개편을 통해 벨라루스에 대한 특혜범위를 축소함
 - * 2015년 러시아는 석유분야 세제개편을 도입했으며(2018년까지 1단계, 2019-25년 2단계 순으로 진행 예고), 1단계에서 벨측은 36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었으나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음. 벨측은 동 상태지속 시, 2025년 106억\$(70\$/배럴 기준) 또는 88억\$(60\$/배럴 기준) 손해 예상

4. 국가 현황 : 역사

- 선사 시대 (B.C 10만 ~ B.C 2만 4천년)
 - B.C 10만-B.C 4만년 벨라루스 영토에 인류 거주 시작
 - B.C 2만7천-B.C 2만4천년 최초 정착촌 등장
- 키예프 공국 시기 (6세기 ~ 1240)
 - 6세기부터 슬라브족이 벨라루스 땅에 들어오면서 여러 小공국들 수립
 - Polatsk 공국, Turov 공국, Pinsk 공국, Minsk 공국
 - 9세기경 Polatsk 공국 및 기타 공국들 키예프 루시에 복속
 - 1240년 몽골의 침략으로 대부분 몽골-타타르에 복속, 나머지는 폴란드-리투아니아 대공국에 귀속
- 제정 러시아의 지배 (16세기 ~ 1918)
 - 1569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의하여 분할
 - 1795년 제3차 폴란드 분할과정에서 벨라루스 영토 대부분이 러시아에 편입
 - 1863년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내란 발발
 - 1917.2 러시아혁명 시, 벨 민족주의자들 라다 위원회 구성 및 자치권 획득
 - 1917.11 붉은군대의 침입으로 소비에트 연방에 통합
 - 1918.3.25 독일이 벨라루스 점령 후 벨라루스 인민공화국 독립 선포
- 소연방 시기 (1919 ~ 1990)
 - 1919.1.1 리가조약으로 동부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건국 선포
 - 1919.2 리투아니아와 합병되어 리투아니아-벨라루스 공화국 창설
 - 1921년 리가조약에 의해 서부 벨라루스가 폴란드에 편입
 - 1937-39 스탈린 테러 정치로 인한 대규모 희생 발생
 - 1939년 히틀러-스탈린 밀약에 의하여 종래 폴란드에 속한 서부 벨라루스 영토가 소연방 벨라루스에 편입
 - 1941-44년간 제2차 세계대전 및 독일 점령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
 - 1939-45년간 인구 13% 감소
 - 1945년 얄타회담에서 벨라루스 국경 변경
 - 벨라루스 서부와 동부지역이 통합되고 150만 폴란드인이 폴란드로 이주
- 독립 및 벨라루스 공화국 시기 (1990 ~ 현재)
 - 1991.7.27 벨라루스 공화국 주권선언 및 독립선언
 - 1991.12.8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함께 CIS 창설
 - 2001.9.9 루카셴코 대통령 재선
 - 2004.10.17 국민투표로 3선 금지 규정 철폐
 - 2006.3.20 루카셴코 대통령 3선
 - 2010.1.1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함께 관세동맹 설립
 - 2010.12.19 루카셴코 대통령 4선
 - 2015.10.11 루카셴코 대통령 5선
 - 2020.8.9 루카셴코 대통령 6선



5. 국가 현황 : 참고사항

벨라루스라는 국명의 기원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에 “백러시아(White Russia)”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흰색을 뜻하는 “벨라”와 “루스”가 합쳐진 말인데 그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 설이 알려져 있다.¹⁾

- (1)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동슬라브족 거주지역(Ruthenia)중 일찍 기독교화된 슬라브족 거주지를 백루스(White Ruthenia), 기독교화되지 않은 원시 슬라브족 거주지를 흑루스(Black Ruthenia)라고 불렀다는 설
- (2) 흰 옷을 즐겨입던 동슬라브족 거주지를 벨라루스라고 불렀다는 설
- (3) 13세기 몽골군의 침입시 몽골군의 침략을 받지 않아 순수성(흰색)을 보존한 지역을 벨라루스라고 불렀다는 설
- (4) 벨라루스는 15세기에 모스크바대공국이 점령한 노브고로드 공국 지역을 지칭한다는 설

한편, 루스(Ruthenia 또는 Rus)라는 명칭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중세 이래 동슬라브족이 거주하던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반 4세 이후 키예프루스의 후계자로 자처하면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로부터 동슬라브족 거주지역을 탈취하고 전 동슬라브지역의 종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루스의 국가, 즉 “러시아”라고 자칭했다. 따라서, 벨라“루스”라는 명칭은 현재의 러시아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구소련권내 러시아어 공용 실태

러시아어는 구소련 지역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각 나라마다 러시아어의 지위는 서로 다르다.

- 국어(national language): 러시아, 벨라루스
- 공용어(official language):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통용어(language for interethnic communication): 타지키스탄

여타 구소련 국가들은 자국어만을 국어로 지정하고 러시아어는 공용어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러시아어가 일상적으로 특히 구소련시대를 거친 장년층을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보면 벨라루스는 러시아 이외에 러시아어가 공식적인 국어로 지정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벨라루스는 유엔의 창설회원국

벨라루스는 유엔의 창설회원국이다. 그런데, 벨라루스가 공식적으로 독립한 날은 1991.8.25이고 소련이 해체된 일자 1991.12.8인데 어떻게 벨라루스가 독립도 하기 전인 1945년에 유엔회원국이 될 수 있었을까?

제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단안전보장체제로서 유엔이 구상되었는데, 소련은 1944년 헌법을 개정하고 “소련의 각 연방공화국(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공화국)은 독자적인 외교권을 갖는다”는 헌법규정을 근거로 소련 연방명의로 유엔 회원국 자격 이외에 15개 소련 연방 구성공화국들이 모두 별도로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당시 소련 대표는 각 연방공화국의 지위는 아직 공식 독립국은 아니지만 자치령(Dominion)이었던 캐나다 등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인도, 필리핀 등이 공식 독립을 획득하기 이전에 이미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례가 있는데, 물론 미국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들 자치령과 소련의 연방공화국은 다르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서방진영과 소련 간 지루한 교섭 끝에 소련 연방공화국 중 반나치 투쟁에 공헌한 바가 큰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유엔회원국으로 인정되었으며, 벨라루스는 1974-7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였다.

1) <http://en.wikipedia.org/wiki/Belarus>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피해

1986.4.26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벨라루스의 근현대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최대의 국가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체르노빌은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북부에 위치해 있지만 벨라루스 국경에 가까이 있고 사고발생 당시 동남풍을 타고 방사능물질이 북서쪽, 즉 벨라루스쪽으로 확산되면서 벨라루스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실질적인 최대 피해국이 되었다(체르노빌에서 유출된 방사능의 70%가 벨라루스에 낙하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벨라루스는 현재까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6,200km²의 지역을 외부와 격리,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1,700km² 지역을 격리지역으로, 4,500km²의 지역을 주민소개지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벨라루스 비상사태부는 체르노빌 사고의 수습·처리비용, 오염으로 인한 물적 손실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손실은 약 2,350억 달러, 사고 오염지역으로부터 소개시킨 주민은 13만 8,000여명으로 추산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오염지역을 떠난 주민은 20만 명으로 보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복지법, 방사능안전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오염 감시활동, 자연환경 감시활동, 방사능오염 제거 및 농축산물 오염정화 활동, 오염된 산림지역 격리 조치, 피해주민 정기검진, 원전사고 관련 연구·홍보활동 등 사고 후유증을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벨라루스인과 감자

벨라루스인들을 가리켜 인접 국가에서는 불바쉬(벨라루스어 бульба - «감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감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불바쉬(Бульбашы)라는 현지 유명 보드카 브랜드도 있음) 역사적으로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와 독일군의 주요 격전장이 되었던 벨라루스는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자를 대량으로 경작하기 시작했다.

감자를 이용한 벨라루스 전통 음식들은 지금도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감자 요리로는 드라니키(Potato pancake)를 들 수 있는데 그 맛은 한국의 감자전과 매우 비슷하다.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의 성격

통상적으로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복수국가가 개별 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능을 국가연합 기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국가연합기구 없이 정책조율을 거치는 동맹(alliance)보다는 진전되고 체계화된 국가통합 단계이고 △국가가 모든 주권을 단일정부에 양도하고 통합국가의 구성국으로 속하게 되는 연방(federation)에는 못 미치는 통합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은 양국 주권기능의 일부 수행이라는 통상적인 국가연합 기구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연합의 성격에 대해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간에도 견해가 엇갈리는데, 벨라루스는 동 국가연합을 양국이 주권을 유지한 진정한 국가연합으로 보는 반면, 러시아는 사실상 러시아-벨라루스 연방국가 창설로 보고 있었다.²⁾

2) Audrius Zulys, “Towards A Union State of Russia And Belarus,” *Lithuanian Foreign Policy Review* (Foreign Policy Research Center, Lithuania), No. 15-16/2005 pp. 157-158.

III. 벨라루스 경제·무역동향

□ 벨라루스 경제의 특징

- 벨라루스는 정부 주도 계획경제 시스템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 관(官)이 시장을 견인함으로써 고용 안정, 물가 조정 등 경제운영의 펀더멘털을 관리
 - * 이러한 구조는 소비에트 경제의 유산이며, 실제 루카셴코 대통령은 소비에트 경제를 추종하는 성향이 강함
- 벨 제조기업 중 상당수는 국영기업인데, 제조사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舊소련식 계획경제가 여전히 작동 가능
 - * 시장 수요와 관계없이 생산, 재고가 누적되어 기업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
 - * 국영기업이 많아 상당수의 구매가 공공조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계획경제의 폐단을 상쇄시키기 위해, 정부는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을 활용해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
 - * 벨 인구 935만 / 러 인구 1.46억 ⇒ 러시아 및 인근국, EU 시장진출이 관건

□ Doing Business in Belarus

- **(Ease of Doing Business)** '20년 World Bank에서 발표한 벨 순위는 전체 190개국 중 49위로 지수가 개선되고 있음 ('14년 63위였음)
 - * 특히 법인설립, 건설허가, 전력공급, 부동산등록 분야에서 꾸준한 지표 개선
 - * 국제청렴성기구 발표 부패인식지수(CPI)도 매년 개선('13년 123위⇒'20년 63위)
- **(Tax Environment)** '21년 기준 법인세율 18%, 부가세 20% 등이며, 기업의 영업이익의 대략 51.8% 가량이 정부에 납세되고 있는 상황
 - * 부가세는 품목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농산물, 유아용품 등에는 10% 부가
- **(IFDI Environment)** 벨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중 70% 가량이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일종의 국영기업임. 따라서 외국기업이 투자를 실행하기에는 비교적 규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

□ 벨라루스의 강점

- **(러시아와 동맹 관계)** 러시아와 정치·경제적으로 특수 관계에 있고, 자원보급, 수출입 등 실물경제 측면에서 對러 의존도 상당히 높은 편임.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 **(EAEU, 새로운 성장동력)** CIS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높은 기술력과 R&D, 탄탄한 제조기반, 물리적 인접성 등이 강점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러·벨·카자흐 3국 관세동맹을 토대로 '15.1월 출범한 경제연합체, 현재 회원국 5개국 (3국+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인건비)** '21년 1월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160달러(400루블)이며, '21년 1~7월 평균임금은 약 554달러(1,384.7루블) 수준임
- **(노동시장)** 계획경제 특수성으로 인해 '20년 기준 노동인구의 39.4% 가량은 공공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노동가능 여성인구 중 70% 가량이 근로 중
- **(R&D)** 높은 교육열과 다수의 고학력자, 기술인력 등을 바탕으로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으로 적극 육성 중
 - * 특히, ICT 분야에 있어 R&D 경쟁력 우수 (Hi-Tech Park 등)
 - * 전체 R&D 자금 중 기업자체 조성자금은 50%에 육박
- **(제조업/ICT산업 발달)** 타 CIS 국가에 비해 공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공업과 ICT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
 - *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부터 기초과학, 컴퓨터 공학 수준이 상당했으며, 여타 국가와 달리 소련 해체 후에도 자국내 제조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2020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47위로 러시아(32위)를 제외하고 CIS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 참고로 러시아 인구는 벨라루스 인구의 약 15.6배이며 GDP규모는 약 24.5배임

< Hi-Tech Park >

- 벨라루스 IT 인재들의 메카라고 불리는 Hi-Tech Park는 '06년 첫입주 이후 '21.9월 현재 1,054개의 ICT 관련 기업이 입주중(한국의 판교테크노밸리와 유사)
- 입주기업 절반이상이 외국 투자 또는 합작기업이며, 생산제품의 90% 이상은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 목적, 2021년 기준 ICT 전문인력 71,000명 이상이 근무중

□ 벨라루스 대외 교역 현황

- 벨라루스의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가스(러시아로부터 수입), 기계 및 차량, 전자기기, 철강, 의약품, 의료/광학기기 등의 10대 품목군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벨라루스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위	2019					2020				
	품목군 전품목	HS -	금액 37,619.6	비중 100	증감 0.96	품목군 전품목	HS -	금액 31,116.1	비중 100	증감 △17.29
1	연료/에너지	27	9,785.6	26.01	△11.72	연료/에너지	27	6,583.8	21.16	△32.72
2	보일러/기계	84	3,995.4	10.62	8.85	보일러/기계	84	3,368.6	10.83	△15.69
3	전자기기	85	2,779.7	7.39	9.23	전자기기	85	2,350.7	7.55	△15.43
4	운송기기	87	1,867.8	4.97	4.29	플라스틱류	39	1,595.4	5.13	△7.12
5	플라스틱류	39	1,717.6	4.57	1.50	철강	72	1,397.8	4.49	△16.88
6	철강	72	1,681.7	4.47	△6.80	운송기기	87	1,379.1	4.43	△26.17
7	철강제품	73	1,044.6	2.78	2.77	의약품	30	999.5	3.21	18.27
8	의약품	30	845.2	2.25	15.68	철강제품	73	922.5	2.96	△11.69
9	의료/광학기기	90	776.0	2.06	16.08	의료/광학기기	90	687.4	2.21	△11.42
10	과실/견과류	08	683.8	1.82	1.14	유기화학제품	29	527.7	1.70	△13.61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벨라루스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위	2019				2020			
	국가명 전세계	금액 37,619.6	점유율 100	증감률 0.96	국가명 전세계	금액 31,116.1	점유율 100	증감률 △17.29
1	러시아	21,257.7	56.51	△3.35	러시아	16,007.5	51.44	△24.70
2	중국	3,516.9	9.35	16.69	중국	3,494.7	11.23	△0.63
3	독일	1,776.6	4.72	△2.26	독일	1,678.0	5.39	△5.55
4	우크라이나	1,682.1	4.47	20.54	우크라이나	1,364.6	4.39	△18.87
5	폴란드	1,325.9	3.52	10.16	폴란드	1,216.6	3.91	△8.24
6	이탈리아	786.4	2.09	△0.24	이탈리아	681.6	2.19	△13.33
7	터키	757.7	2.01	△5.39	터키	590.3	1.90	△22.10
8	미국	472.6	1.26	8.81	미국	451.0	1.45	△4.56
9	네덜란드	420.9	1.12	30.16	네덜란드	386.9	1.24	△8.08
10	리투아니아	382.2	1.02	7.79	프랑스	300.9	0.97	△12.33
	대한민국(23)	141.6	0.38	14.53	대한민국(25)	118.3	0.38	△16.45
	일본(24)	131.6	0.35	2.61	일본(19)	161.1	0.52	22.47
	대만(31)	94.9	0.25	△0.96	대만(32)	86.3	0.28	△9.09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유의 가공품), 화학제품(칼륨비료), 기계 및 차량(트랙터 및 트럭), 농식품류, 목재, 금속류 등의 제품이 70% 이상을 차지

[벨라루스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위	2019					2020				
	품목군	HS	금액	비중	증감	품목군	HS	금액	비중	증감
	전품목	-	31,088.2	100	△3.41	전품목	-	27,262.8	100	△12.30
1	연료/에너지	27	6,821.2	21.94	△19.44	연료/에너지	27	3,717.8	13.64	△45.50
2	비료	31	3,260.7	10.49	1.26	비료	31	2,927.2	10.74	△10.23
3	운송기기	87	2,404.9	7.74	△7.25	낙농품	04	2,417.9	8.87	2.13
4	낙농품	04	2,367.5	7.62	15.51	운송기기	87	2,068.4	7.59	△13.99
5	보일러/기계	84	1,444.7	4.65	3.78	목재	44	1,509.1	5.54	6.73
6	목재	44	1,414.0	4.55	0.72	보일러/기계	84	1,496.3	5.49	3.57
7	플라스틱류	39	1,099.0	3.54	1.31	플라스틱류	39	1,013.0	3.72	△7.82
8	철강	72	1,022.1	3.29	△6.27	전자기기	85	988.0	3.62	1.19
9	전자기기	85	976.3	3.14	4.55	철강	72	863.3	3.17	△15.54
10	철강제품	73	885.0	2.85	0.06	식용 육류	02	804.7	2.95	2.62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벨라루스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위	2019				2020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전세계	31,088.2	100	△3.41	전세계	27,262.8	100	△12.30
1	러시아	13,255.0	42.64	5.90	러시아	12,639.5	46.36	△4.64
2	우크라이나	4,093.0	13.17	1.57	우크라이나	3,108.9	11.40	△24.04
3	국가미상	2,864.4	9.21	2.24	국가미상	2,474.9	9.08	△13.60
4	영국	2,292.7	7.37	△25.27	폴란드	1,176.4	4.31	△0.40
5	독일	1,298.1	4.18	△10.07	리투아니아	1,029.3	3.78	△1.73
6	폴란드	1,181.1	3.80	△3.55	독일	902.9	3.31	△30.45
7	리투아니아	1,047.4	3.37	△8.51	영국	823.5	3.02	△64.08
8	네덜란드	801.2	2.58	△43.76	카자흐스탄	741.8	2.72	1.80
9	카자흐스탄	728.6	2.34	△5.86	네덜란드	689.2	2.53	△13.97
10	라트비아	363.8	1.17	△22.55	중국	424.5	1.56	50.89
	중국(11)	281.3	0.91	43.28	라트비아(11)	306.8	1.13	△15.67
	대한민국(67)	7.2	0.02	△6.15	대한민국(63)	9.2	0.03	28.14
	일본(61)	9.6	0.03	42.84	일본(69)	7.0	0.03	△27.37
	대만(64)	7.9	0.03	△52.16	대만(91)	2.1	0.01	△74.12

자료: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IV. 한국-벨라루스 관계

1. 기본 현황

	체결일	체결 내용
체결 협정 및 약정	1997년 04월	투자보장협정, 외무부간 협정의정서
	2003년 06월	이중과세방지협정
	2004년 10월	경제·과학·기술 협력 협정, 감사원간 교류협력약정
	2004년 11월	무역협정
	2006년 07월	소방방재청간 협력 약정
	2006년 9월	상공회의소간 협력 약정
	2007년 11월	문화협정, 항공협정, 세관분야협력약정, 표준화 약정,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 기술표준분야 협력약정, 과학연구단지간 협력약정
	2008년 12월	한-벨 과학기술협력 MOU (2017년 4월 개정)
	2009년 06월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범공조조약은 양국이 문안에는 합의 하였으며 서명계기에 대해서는 협의중
	2012년 06월	증권거래기관간 협력약정
		협의중인 협정: 원자력 협정, 세관상호지원협정
교역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백만\$): ('15) 47.0, ('16) 28.5, ('17) 28.6, ('18) 32.6, ('19) 47.7, ('20) 54.6 ○ 수입(백만\$): ('15) 46.9, ('16) 37.2, ('17) 44.6, ('18) 44.8, ('19) 55.9, ('20) 40.9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벨라루스 수출품: 자동차(부품), 타이어,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기계류 등 ○ 對벨라루스 수입품: 칼륨비료, 반도체, 유리제품, 식물·의류, 목재 등 	
투자 교류	SK하이닉스, 벨라루스 펌웨어 기업 인수합병(1천만\$ 규모, 2014.06) 등 5개사	
교민	벨라루스 거주 재외동포 현황: 약 1,350여명(민스크에 약 300명) 추정 교민현황: 약 65명 (선교사/주재원/공관직원 가족 및 유학생, '21년 9월 기준)	

(자료: 외교부, KITA, 한국수출입은행 등)

2. 韓-벨라루스 교역 현황

- 1992년 수교 후, 한-벨 양국 간 교역은 단기간 내 급격히 성장해 왔고, 2013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 2020년은 9,546만 달러를 기록.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역 규모가 작다보니 연도별로도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벨라루스로 직접 수출하는 금액만 우리 관세청 통계상에 잡힘
- 러시아, 리투아니아 등을 통해 벨라루스로 우회수출되는 제품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로 벨라루스 관세청이 원산지 등을 따져본 결과,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규모는 매년 1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벨 통계청에 의하면 對한국 수입액은 '16년 8,492만\$, '17년 1억 1,692만\$, '18년 1억 2,363만\$, '19년 1억 4,159만\$, '20년 1억 1,830만\$임

- 최근 7년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교역 현황 (단위: 천 US\$, %) (자료: KITA)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금 액	40,955	47,026	28,469	28,645	32,559	47,696	54,573
	증감률	△42.6	14.8	△39.5	0.6	13.7	46.5	14.4
수입	금 액	44,894	46,940	37,163	44,613	44,769	55,934	40,885
	증감률	51.4	4.6	△20.8	20.0	0.4	24.9	△26.9

-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출품목 및 증감률 (MTI 3단위 기준) (단위: US\$,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6	원동기및펌프 3,800,742 (142.5)	합성수지 3,476,394 (2,809.7)	농약및의약품 2,946,498 (20.7)	자동차부품 2,464,596 (△39.8)	고무제품 2,092,026 (67.4)
2017	농약및의약품 3,123,901 (6.0)	기계요소 3,072,837 (780.1)	자동차부품 2,914,246 (18.2)	합성수지 2,619,308 (25.2)	합성수지 2,538,348 (△27.0)
2018	고무제품 3,412,752 (30.3)	자동차 2,463,848 (5,006.9)	기타기계류 2,369,638 (116.6)	농약및의약품 2,335,049 (△25.3)	자동차부품 2,138,552 (△26.6)
2019	자동차 8,659,333 (251.5)	고무제품 5,752,608 (68.6)	자동차부품 3,971,194 (85.7)	의료용기기 3,159,726 (62.9)	계측제어분석기 2,476,669 (27.1)
2020	고무제품 13,957,408 (142.6)	자동차부품 7,393,102 (85.5)	자동차 4,644,033 (△46.4)	비누치약및화장품 2,922,014 (55.9)	농약및의약품 2,919,862 (32.6)

(자료: KITA)

- 현지에서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인기는 높지만, 이들 제품은 벨라루스로 직수출되는 제품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벨라루스로 유통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기업의 對벨라루스 수출, 특히 직수출은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목 또한 다양함. 그러나 수출금액 측면에서 소규모 거래인 경우가 대부분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주요 수입품목 및 증감률 (MTI 3단위 기준) (단위: US\$,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6	칼륨비료 29,177,065 (△21.6)	반도체 4,290,903 (1.2)	기타직물 1,305,424 (42.3)	광학기기 519,997 (24.9)	계측제어분석기 451,690 (219.4)
2017	칼륨비료 34,946,897 (19.8)	반도체 4,304,614 (0.3)	기타직물 1,653,598 (26.7)	기타화학공업제품 980,644 (0.0)	광학기기 463,076 (△10.9)
2018	칼륨비료 33,709,201 (△3.5)	반도체 3,647,116 (△15.3)	기타직물 2,002,244 (21.1)	목재류 1,562,948 (4,121.9)	광학기기 606,226 (30.9)
2019	칼륨비료 47,237,248 (40.1)	반도체 3,295,099 (△9.7)	기타직물 1,676,314 (△16.3)	목재류 623,742 (△60.1)	의류 505,901 (182.7)
2020	칼륨비료 29,256,723 (△38.1)	반도체 3,751,951 (13.9)	기타직물 2,377,474 (41.8)	기타화학공업제품 953,077 (334.1)	목재류 717,747 (15.1)

(자료: KITA)

3.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투자진출

- 현재 벨라루스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은 5개사인데,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3개사와 금청약품 대표사무소, 제이코멕스 현지법인 등임
 - * LG전자, 삼성전자는 현지 영업을 전담하는 대표사무소 및 지사 형태로 진출해 있음
- SK하이닉스는 벨라루스 현지의 IT 기업을 인수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데, 다른 투자진출 기업과는 다소 독특한 형태로 투자진출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 벨라루스 IT기업 Softeq社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합병(1천만\$ 규모, 2014.06)
 - * IT분야 R&D 투자는 현지의 우수한 IT인력을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실현된 것임

V.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 시차

- 한국과 벨라루스의 시차는 -6시간 (한국이 15시일 때, 민스크는 09시)

□ 기후

- 온대 대륙성 기후로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우기로 일조량이 적으며, 기압이 낮음 (1월 평균기온 -5°, 7월 평균기온 17°)

□ 전압

- 220V, 50Hz 사용 (한국 가전제품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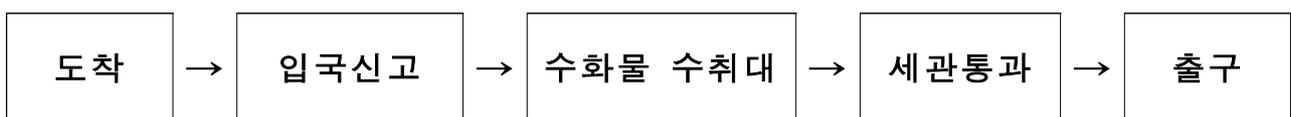
□ 비자

-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벨라루스에 단기 체류(30일 이내) 시, 비자 취득 없이 입국 및 방문이 가능
- 단, 러시아를 경유해서 벨라루스로 입국할 경우에는 벨라루스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입국 가능
- 단기 체류가 아닌 경우, 벨라루스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함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은 방문비자 취득 불요)

□ 취항 정보

- 한국과 벨라루스간 직항편은 없으며, 모스크바, 헬싱키, 바르샤바, 두바이, 아부다비, 이스탄불, 타슈켄트, 알마티, 프랑크푸르트 등을 경유해 입국
* 2021년 5월 민항기 납치사건 이후 유럽영공을 지나는 항로는 무기한 중단상태

□ 입국 절차



☐ 교통

○ 택시

- 민스크에서는 택시 이용시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길거리에서 택시를 보고 손을 흔들어도 거의 서지 않음
- 호텔앞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도 있으나 요금이 비싸며, 일부 호텔 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함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콜택시 번호는 135번, 152번, 7788번 등임
- 공항-시내 간 공항택시는 편도 40~50루블(약 16~20달러) (2021년 9월 기준)

○ 대중교통

- 공항버스: 시내까지 5루블(약 2달러) (2021년 9월 기준)
- 지하철: 민스크에는 3개의 지하철 라인이 있음. 1회 탑승권 구입 후 도착역까지 환승이 가능 (2021년 9월 기준 0.8루블, 약 32센트)



- 버스, 궤도전차, 궤도버스: 1회 탑승권구입 후, 도착정류장까지 이용. 환승은 불가 (2021년 9월 기준 0.75루블, 약 30센트)
- 대중교통의 경우, 비교적 깨끗하고 구역별로 잘 정리돼 불편함은 없으나, 운행노선을 잘 모를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전화

- (국제전화) 휴대폰으로 한국으로 전화할 때는 +82(한국 국가번호) - 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됨

□ 환율 및 환전

- 화폐단위: 벨라루스 루블(Rouble: BYN)
 - 지폐 종류: 500/200/100/50/20/10/5 루블 8종류
 - 동전 종류: 2루블, 1루블, 50/20/10/5/2/1 코페이카 8종류
- 환율 : 벨라루스 중앙은행 기준환율('21.9월) US\$1 당 약 2.5루블
(벨라루스 중앙은행 기준환율('21.9월) 1루블은 약 472원)
 - 참고사항: 벨라루스 루블은 필요한 만큼만 환전을 권장하며, 벨라루스 내 상점 및 식당에서는 외화는 일체 사용되고 있지 않음
- 환전장소: 은행, 호텔, 거리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가능
 - 환율은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큰 액수가 아닐 경우 호텔 내 환전소를 이용해도 큰 차이 없음
- 카드사용: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됨(영세상점, 시장 제외)

□ 거주 등록

- 벨라루스는 외국인의 불법이주를 막기 위해 거주지 등록제를 실시 중
 - 근무일 기준 5일내 출국시에는 거주 등록이 불필요하나 그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등록을 해야 출국시 문제가 없음
- 호텔 체크인시에는 자동으로 거주 등록이 되나, 1주일 이상 아파트에 체류할 경우 집주인의 거주등록 지원 여부 사전확인 필요

□ 신변 안전

- 일반적으로 민스크에서의 범죄율은 매우 낮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최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음

VI. 민스크 시내 주요 식당 정보

1) Sporting Club

- 전화번호: +375-29) 135-0000
- 주소: проспект Независимости, 193 (Prospekt Nezavisimosti, 193)
- 메뉴: 벨라루스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 비고: 단체 손님을 모시기에 적합, 클레이 사격장이 함께 있음

2) 그랜드 카페(Grand Cafe)

- 전화번호: +375-44) 703-1111
- 주소: улица Ленина, 2 (Lenin street, 2)
- 메뉴: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 비고: 분위기가 고급스러워 귀빈을 접대하기에 적합

3) 바실키(Vasilki)

- 전화번호: +375-29) 706-7034
- 주소: Pobediteley avenue, 9 (Shopping mall Galleria Minsk內)
- 메뉴: 벨라루스 전통식,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민스크 곳곳에 매장이 있음

4) 르네상스

- 전화번호: +375-17) 342-0991, +375-29) 178-4445
- 주소: пл. Свободы, 23 (Svaboda Square, 23)
- 메뉴: 벨라루스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 비고: 분위기가 고급스러워 귀빈을 접대하기에 적합

5) 양쯔(Yangze)

- 전화번호: +375-29) 123-6688
- 주소: пл. Свободы, 8 (Svaboda Square, 8)
- 메뉴: 중식 (최근 비빔밥을 새로운 메뉴로 소개, 한식당이 없는 민스크에서 유일하게 한식(비빔밥)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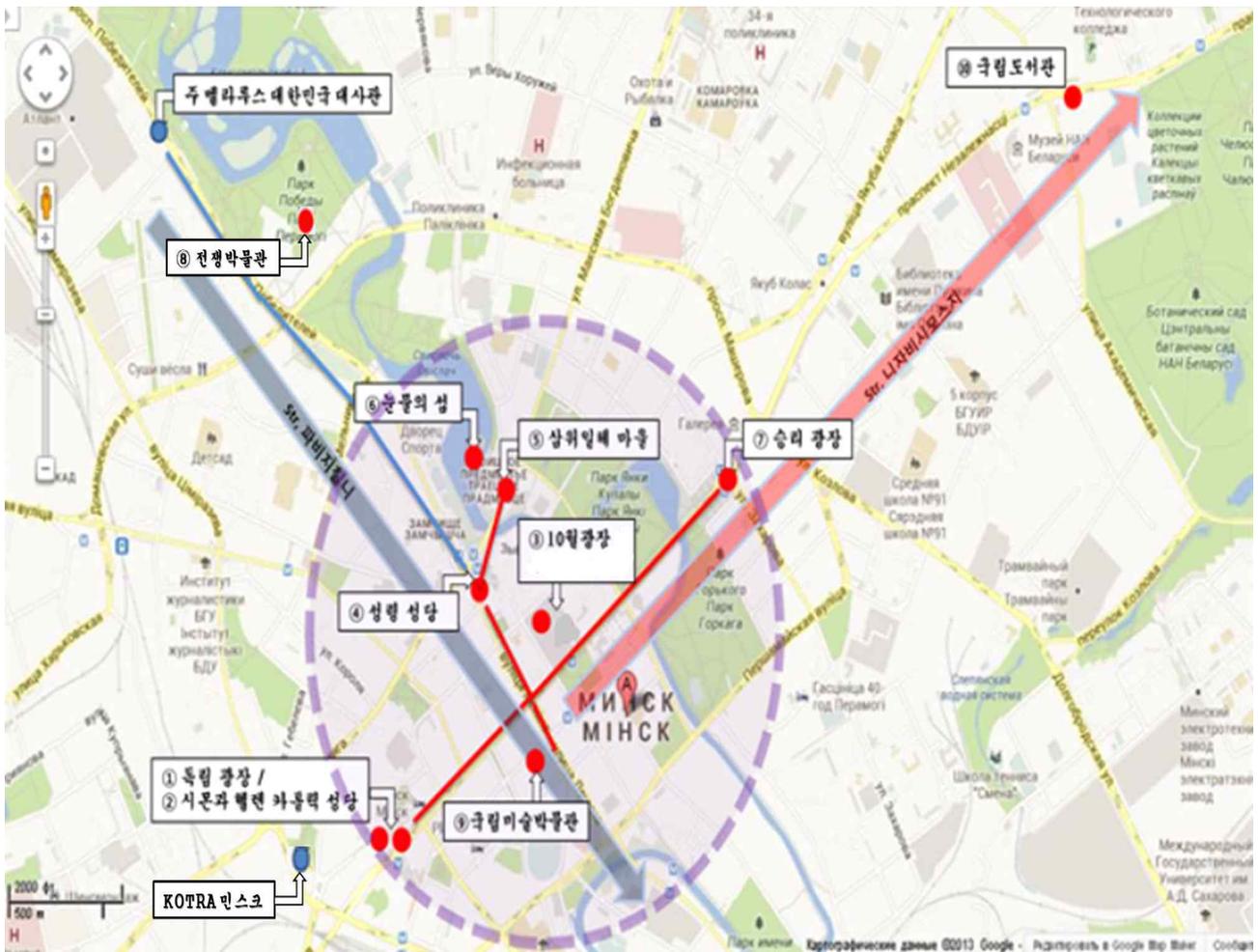
6) Rakovskiy Brovar

- 전화번호: +375-44) 733-9339
- 주소: Витебская улица, 10 (Vitebskaya street, 10)
- 메뉴: 벨라루스식
- 비고: 생맥주를 겸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곳

Ⅶ. 주요 명소 및 기념품

1. 민스크 시내 주요 명소

수도 민스크는 약 95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벨라루스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독립국가연합(CIS)의 사무국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으나 전후 재건되어 도시 미관이 매우 아름답고 깨끗하다. 도로망 또한 잘 발달되어 있다. 반면에 역사적인 유적이나 옛 건축물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민스크 대부분의 관광 명소들은 중앙로인 독립대로(Ave. Nezavisimosti, проспект Независимости)에 따라 위치해 있다.



○ 독립광장 (площадь Независимости, Independence Square)

- 민스크 시내를 관통하는 독립대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청사, 벨라루스 국립대학, 벨라루스 국립사범대학, 시청과 중앙우체국, 그리고 가톨릭 성당과 민스크 호텔 등이 위치
- 정부 청사 앞에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후 소련 연방 창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 동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는 현대식 지하 쇼핑센터임



○ 가톨릭 성당(시몬과 헬렌 성당) (Костёл Святого Симеона и Святой Елены : Красный костёл, St. Simeon and St. Helen Roman Catholic Church : The Red Church)

- 독립광장 옆에 위치한 고딕양식의 가톨릭 성당으로 외벽이 붉은 벽돌로 지어진 특성으로 인하여 붉은 성당이라고도 불림
- 1908년에 착공하여 1910년에 완공되었는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대표적인 유적



○ 10월 광장 (Октябрьская площадь, October Square)

- 민스크 시내 중심에 위치한 큰 광장으로 주위에 국립회관, 문화회관, 중앙공원, 그리고 舊 대통령 집무실 등이 인근에 위치
- 특히 국립회관은 구소련 연방시절 공산당 전당대회 목적으로 건립이 추진 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문화 공연 장소로 이용 (건물 외곽 모양은 모스크바의 레닌의 묘를 본떠 건립)
- 10월 광장에 위치한 0Km 라는 이정표가 있는데 이는 민스크가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중심임을 상징



○ 성령 성당 (Кафедральный собор Сошествия Святого Духа, Holy Spirit Cathedral)

- 민스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의 하나로 스비슬로치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 1642년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러시아 정교회 사원으로 전쟁의 폐허가 빚겨간 유적 중의 하나로, 내부에는 러시아 정교회를 상징하는 많은 성상과 성화가 있어 이를 감상할 수 있고 일요일 오전에 방문하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참관할 수 있음
- 주소: улица Кирилла и Мефодия, 3 (St. Kirilla and Mefodiya 3)
- 근처 자유광장(Площадь Свободы, Svaboda Square)에 초기 시의회 건물과 열쇠를 들고 발아래 16세기 도시 계획을 펼쳐놓은 치안판사의 동상이 있음



- 삼위일체 마을 (Троицкое предместье, The Trinity Suburb)
 - 민스크에서 올드타운(Old town)으로 불리는 지역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되지 않은 지역으로 18~19세기 민스크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 민스크를 가로 지르는 스비슬로치 강변 위치해 있고 붉은 계통의 낮은 건물은 중세 유럽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많은 건물은 레스토랑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강변 쪽으로 노천카페의 맥주축제와 공연들이 관광객과 민스크 시민에게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

- 눈물의 섬 (Остров слез(Остров Мужества и Скорби), Island of Tears)
 - 스비슬로치 강변에 위치한 섬으로 1979~1989 아프가니스탄 참전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비가 1996년 세워짐. 아들·남편·연인을 잃은 여인들의 표정이 잘 묘사되어 있음. 주변 호수 벨라루스 호텔 앞에는 작가 푸쉬킨의 동상이 있음

- 승리 광장 (площадь Победы, Victory Square)
 -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해 1954년에 세워진 40m 높이의 오벨리스크 전승기념비가 독립대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전쟁당시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이 1961년 점화된 후 지금까지 타고 있음
 - 벨라루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국민의 30%가 사망
 - 가까이 스비슬로치 강이 흐르며 아름다운 고리키 공원과 얀카 쿠팔라 공원이 있어 잠시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음
 - 지하철역 : Плошча Перамогі (Ploscha Peramohi)

- 전쟁 박물관 (Музей истор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State Museum of War)
 - 승리공원(Парк Победы)에 위치. 구소련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전쟁 박물관으로는 최초로 개관됨.
 - 1941-1945년까지의 전쟁 상황에 대한 기록문서와 사진, 전투 상황과 무기, 그리고 유격대들의 활약상을 기록 전시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 주소 : пр. Победителей, 8 (Pobediteley Ave, 8)

- 국립 미술박물관 (Национальны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National Art Museum of Republic of Belarus)
 - 벨라루스의 최대 미술 박물관으로 현재 2만 6천점의 소장품을 소유
 - 중세와 근대에 걸친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또한 가톨릭과 러시아 정교회의 성상과 성화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으며, 2009년 5월 한국관이 개설됨
 - 주소: улица Ленина, 20 (Lenin street, 20)

- 국립 서커스 (Белорус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цирк, Belarus State Circus)
 - 벨라루스의 최대 서커스장으로 매 시즌마다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공연함
 - 주소: проспект Независимости 32 (Independence Avenue 32)
- 국립 오페라 발레 극장 (Большой театр Беларуси, Belarus National Bolshoi Opera and Ballet Theater)
 - 1937년에 완공된 벨라루스 최대 극장으로 다양한 오페라 및 발레가 공연됨
 - 주소: пл. Парижской Коммуны, 1 (Parizhskaya Kommuna sq., 1)
- 독립 궁전 (Дворец Независимости, Independence Palace)
 - 대통령궁으로,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공간, 외교사절단 접견장소이기도 함
 - 주소: просп. Победителей, 12 (Pobediteley Ave, 12)
- 깃발 광장 (Площад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лага, State Flag Square)
 - 벨라루스 최대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광장으로 대통령궁 및 전시장 옆에 위치
 - 주소: просп. Победителей, 14 (Pobediteley Ave, 14)
- 민스크 게이트 (Ворота Минска, Minsk City Gates)
 - 민스크 중앙역 맞은편에 2개의 1950년대 스탈린 양식 건물이 대칭적으로 위치
 - 주소: ул. Кирова, 2 (Kirov str, 2)
- 벨라루스 국립도서관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Беларуси, Belarus State Library)
 - “지식의 보화”란 의미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본 따서 2006년 6월 개관, 옥상 전망대에 오르면 시내전경을 볼 수 있음. 높이 72.6m, 연면적 112,600m²
 - 도서관 기본시설 이외에 고서 박물관, 미술 박물관,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음
 - 주소: проспект Независимости 116 (Independence Avenue 116)
- 성 피터&폴 성당 (Собор Святого Петра и Павла, St. Peter & Paul Cathedral)
 - 러시아 정교회 성당으로 민스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중 하나임
 - 주소: Раковская ул, 4 (Rakovskaya Str, 4)
- 알렉산더 넵스키 사원 (Церковь святого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Church of St. Alexander Nevsky)
 - 1877~1878 러시아-터키전쟁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사원으로 1898년에 완공
 - 주소: ул. Козлова, 11 (Kozlova str, 11)

2. 민스크 시외 주요 명소

- 미르 성 (Мирский замок, Mir Castle)
 - 민스크 남서쪽으로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16세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성벽높이 13m)로 구소련시절엔 방치되어 있었다가 1990년 독립 이후 국가 시책으로 복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는 완전한 복원을 이룸
 - 2000년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으며 벨라루스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여름에는 중세 전투를 재현하는 축제가 개최되어 관광객을 사로잡음
- 네스비쉬 성 (Несвижский замок, Nesvizh Castle)
 - 민스크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네스비쉬는 벨라루스에서 가장 부유했던 봉건 영주이며 귀족인 '라드지빌스'가의 거주 지역으로 16세기경에 이탈리아 건축가에 의해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짐
 - 넓은 벌판에 인공으로 만든 둑과 요새와 수로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의 모습을 자랑
- 샤갈 박물관 (Музей Марка Шагала, Mark Chagall's Museum)
 - 세계적으로 색채의 마술사 또는 표현주의의 대가라 불리는 마르크 샤갈 (1887~1985)의 생가가 비텡스크에 위치
 - 샤갈은 제정러시아 시대에 출생하여 사회주의 소련을 떠나 유럽에서 작품 활동을 하여 구소련 당시에는 잊혀진 존재가 되며, 이로 인하여 샤갈의 생가에 대한 보전도 관심이 없다가 최근 뜻을 같이한 사람들에 의해 그의 생가가 복원
 - 전시된 작품은 주로 유년기 작품 및 습작 또한 그가 사용했던 소품들로 샤갈의 생가에서 비록 그의 위대한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의 예술적 영감의 태동은 직접 느낄 수 있음
 - 주소: Pokrovskaya str 11, Vitebsk City
- 민속촌 (두두끼: Дудutki, Dudutki)
 - 민스크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민속촌으로 19세기의 벨라루스 전통 민속 마을의 모습을 재현한 곳
 - 대형 풍차와 도기 제조소, 그리고 대장간과 보드카를 제조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장비도 전시해 놓고 있으며, 여름에는 전통공연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음
- 브레스트 요새 (Брестская крепость, Brest Fortress)
 - 폴란드와 국경을 접한 도시인 브레스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 무명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조형물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음

- 핫틴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Хатынь”, State memorial complex KHATYN)
 - 민스크에서 북쪽으로 약 5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치 독일군의 잔악성을 고발하는 장소로 활용
 - 1943년 3월 22일 독일군이 핫틴 마을에 진입하여 마을주민을 한곳에 가둔 후 불로 학살했는데 149명 중에서 75명이 어린 아이들로, 당시 유일한 생존자인 한 할아버지가 희생된 손자를 들고 서있는 동상이 있음
 -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는 비석들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 30분마다 울리는 타종 소리는 후손들에게 전쟁의 참혹성과 조국애를 상기 시키고 있음
- 영광의 언덕 (Курган Славы, Mound of Glory)
 - 민스크 국제공항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소련 붉은 군대와 나치독일군 간의 가장 치열했던 탱크전이 있었던 장소에 세워진 기념탑
 - 당시의 탱크전 때 소련군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독일까지 진격하게 되고 전승을 거두었으며,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벨라루스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 고향의 흙을 직접 가지고 와서 쌓아 언덕을 만들고 정상에 기념비를 세운 후 이를 영광의 언덕이라 명명함.
 - 정상에 올라가면 벨라루스의 드넓은 평원을 한눈에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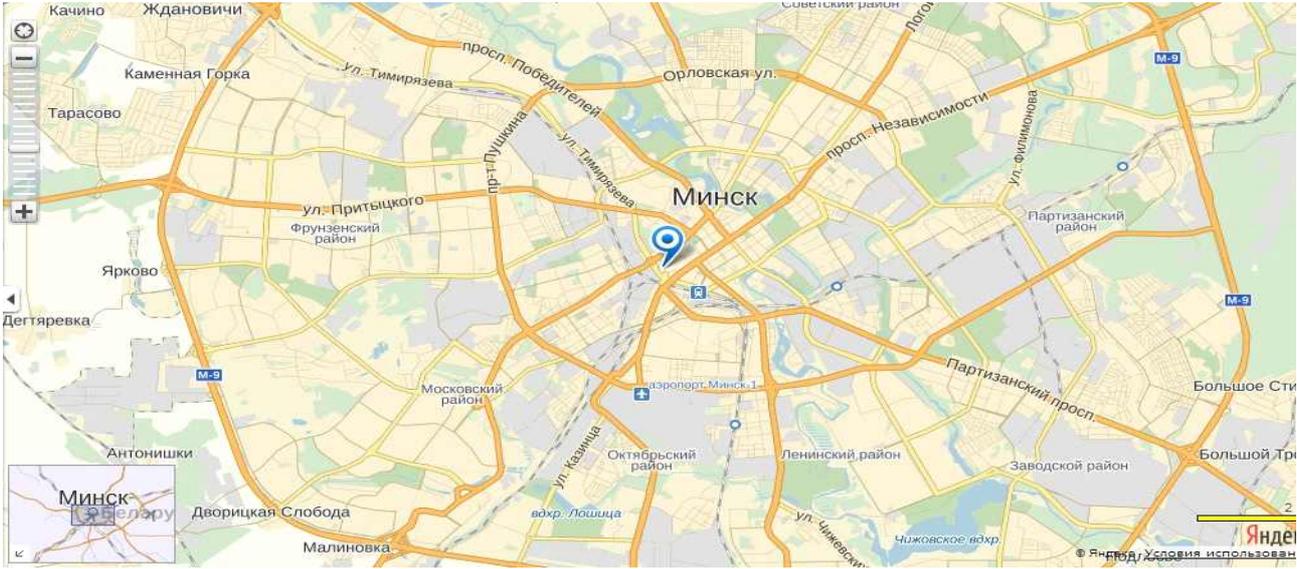
3. 벨라루스 기념품

- 벨라루스는 양질의 linen(아마) 생산국으로, 이를 재료로 하여 만든 벨라루스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인형과, 베갯잇, 식탁보 등의 수공예품이 유명
- 나뭇가지나 밀짚을 엮어서 만든 바구니, 인형, 그리고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든 「슈카툴카(шкатулка, Shkatulka)」라고 불리는 보석함과 행운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지닌 「말발굽」 모양의 수공예품도 있음
- 이 외에 벨라루스의 상징인 「주브르(Зубр, Bison) : 전세계 유일하게 벨라루스에서만 서식하는 유럽 사향소」를 형상화하여 만든 제품이 벨라루스를 대표하는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념품들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념품 코너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음

Ⅷ. 무역관 오시는 길 및 주요 연락처

1. 무역관 위치 및 연락처

□ 민스크 무역관 위치 (민스크 시내 중심)



□ 무역관 오시는 방법

- 공항에서 찾아오시려면 택시이용을 권장(시간은 약 40~50분 소요)
 - 공항에서 시내 들어오는 공항택시는 편도 40~50루블임 (2021년 9월 기준)
- 가까운 지하철역
 - 1호선 Площадь Ленина(레닌 광장), 역에서 무역관까지 도보 약 10분 소요
 - 3호선 Площадь Франтишка Богушевича, 역에서 무역관으로 직접연결

□ 무역관 연락처

- 주소: Commercial Section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e 509, 70 Myasnikova street, Minsk, 220030, Republic of Belarus
- 전화: +375-17-200-0168~0169, (인터넷) 070-7001-0610~0611
- 팩스: +375-17-200-0156
- 무역관장(김동묘) e-mail: kotra@kotraminsk.by
- 무역관장(김동묘) 휴대폰: +375-44-753-4088

2. 대사관 연락처

□ 駐 벨라루스 한국대사관 연락처

- 주소: 220002, Storozhevskaya street 10, Minsk, Belarus
- 전화: (대표) +375-17-215-0170~2, (영사과) +375-17-215-0173~4
 - (야간 및 공휴일 당직): +375-29-369-132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 팩스: (대표) +375-17) 215-0175, (영사과) +375-17) 215-0176
- 대표 e-mail: belemb@mofa.go.kr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by-ko/index.do>
- (참고) 주한 벨라루스대사관 홈페이지: <http://korea.mfa.gov.by/ko/>

3. 기타 유용한 전화번호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01	화재신고	102	경찰 및 범죄신고
103	구급차	104	시외버스 안내
105	철도 안내	106	공항 안내

[국제지수로 보는 벨라루스 (2018~2021)]

자료작성기관	지 수	내용(단위)	세계순위	비 교		
			벨라루스	한 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UN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	53	23	52	74
UN	Life Expectancy Index 기대수명	74.8(세)	95	10	119	123
UN	Population Growth Rate 인구증가율	-0.7(%)	95	10	9	194
UN	Education Index 교육지수	-	32	25	39	47
The Legatum Institute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행복한 나라지수	-	69	28	76	92
New Economic Foundation	The Happy Planet Index 행복지수	-	102	80	116	70
The World Bank	Health Expenditure 1인당 의료비 지출	GDP 6.1(%)	94	29	69	130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환경성과지수	-	49	28	58	60
UN	Child Mortality Rate 영아 사망률	1000명 / 2.6명	14	19	52	62
Charities Aid Formation	The World Giving Index 세계기부지수	-	121	60	110	81
KOF Swiss Economic Institute	KOF Index of Globalization KOF 세계화지수	-	72	35	49	44
UN	Urban Population 인구도시집중지수	전체 / 79%	48	39	60	73
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Vehicles Per Capita 차량보유지수	1000명 / 369명	50	42	49	76
UN	Homicide Rate 살해사망률	10만명 / 2.4명	115	72	21	120

자료작성기관	지 수	내용(단위)	세계순위	비 교		
			벨라루스	한 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Global Peace Index 세계평화지수	-	94	48	154	148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The Global Terrorism Index 세계테러지수 (Lowest=Best)	-	135	99	39	36
Reporters Without Borders	World Press Freedom Index (2021) 언론자유지수	-	158	42	150	97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부패인식지수	-	63	33	129	117
The World Bank	Gross Domestic Product (GDP) GDP성장지수	-	77	12	11	57
The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2021) 경제자유도지수	-	95	24	92	127
The World Bank	Gross National Income (GNI) 1인당 GNI	4,710(\$)	101	35	73	143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글로벌경쟁력지수	-	비회원	13	43	85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비즈니스 환경지수	-	49	5	28	64
The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	103	25	75	66
The World Bank	The Knowledge Economy Index 지식경제지수 (0=lowest & 100=highest)	50.0	47	19	45	56

자료작성기관	지 수	내용(단위)	세계순위	비 교		
			벨라루스	한 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WIPO	The Global Innovation Index 글로벌이노베이션지수	-	62	5	45	49
UNIDO	The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제조업경쟁력지수	-	47	3	32	69
UNESCO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연구개발지출	-	43	2	27	42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CT Development Index 정보화개발지수	-	32	2	45	79
Portulans Institute	Networked Readiness Index 네트워크준비지수	-	65	14	48	64
UN	The UN Global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전자정부개발지수	-	40	2	36	69

[성희롱 예방 가이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되며, 그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즉 행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동을 말한다.

‘성적 언동 및 요구’는 신체의 접촉이나 성적인 의사표현뿐 아니라 성적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설사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한다.

□ 성희롱의 대표적인 사례는?

- 1) 여성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2) 여성의 특정 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행위
- 3) 야한 농담을 하는 행위
- 4)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 5) 허리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 6) 안마를 해준다고 어깨를 만지는 행위
- 7)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는 행위
- 8)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행위
- 9) 업무 중 의자를 끌어와 일부로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10) 고의적으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

□ 통역원에게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 주세요!

- 1) 현지인(or 한국인) 사귀어 봤어? 너 정도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 2) 끝나고 한 잔 할까? 너 나하고 만나서 저녁 같이 할래?
- 3) 나중에 내 생각나면 연락해
- 4) 며느리 삼고 싶다 등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